

차기부터 축소교섭 휴가 전 타결하자

5월 29일(목) 에스제이엠에서 5차 집단교섭이 열렸다. 사용자는 10개 사 명, 조합은 11개 사업장 47명이 참가했다.



속도감 vs 시간 더

사용자는 “벌써 5차 교섭,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다.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이규선 지부장은 “대선 잘 진행돼서 내란 세력 척결하길 바란다”며 “노조 전체가 투쟁 계획에 윤곽을 잡는 시점이니 속도감을 높여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지도록 하자”고 답했다.

1차 제시안, “화재대비” 원안 수용 “임금·협약서 체결” 답답

5번째 교섭에서 1차 제시안이 나왔다. 뒷면 참조 통일요구작업중지권과 중앙교섭 요구기후위기 대응, 금속 산업 최저임금은 모두 중앙협약을 따른다고 냈다.

지부 공동요구인 **화재발생 대비**는 원안을 수용했다. 이 요구는 애초에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에 따라 심각해지는 재난인 화재 대응에 경각심을 갖기 위한 취지로, 현행 법 수준에서 요구한 것이다. 이후 각 사에서 실질적인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금과 집단교섭 협약서 체결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금은 통상임금 판결과 이에 따른 노동시간 변경 등 여러 현안이 각 사별로 다양한 여건이어서 당장 제시가 힘들다고 했다.

유상기 지회장은 “어느 시점에 일괄 제시가 가능한 게 아니라면 임금도 가능한 수준부터 안을 내 꾸준히 교섭하자”고 강조했다.

정도환 우창정기 지회장은 “통상임금 관련 우창은 이미 특단협 합의를 했으니 안을 내서 교섭이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집단교섭 협약서에 관해서 사측은 지난 1, 2차 질의와 같은 입장이다. 조합은 “전체 중 곤란한 일부 안을 제외하고 수용 가능한 안은 정리해서 내라”고 했지만 사용자는 “협약서 체결 방식에 대한 것부터 사용자 간 의견 조율이 어렵다. 그 전에 구체 조항 먼저 논의하라는 것은 요구의 성질에 안 맞다”는 입장이다.

차기부터 축소교섭 하자

이규선 지부장은 “2020년 이후는 다 같이 합의 했으니 실질적으로 08-19년 사이를 검토하는 것, 가능한 부분 빨리 정리해서 제시해달라”며 “다음 교섭부터 협약서 정리를 위한 축소교섭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차기에 사측이 협약서 관련 정리된 안을 내면 그를 바탕으로 축소교섭을 진행해 쟁점을 압축하고 효율적으로 교섭하자는 것이다. 사측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휴가 전 타결 vs 고 난이도 요구

조합은 “휴가 전 타결 위해 예정된 금속노조 파업 전에 최대한 쟁점을 좁히자. 차기부터 성의 있게 안 달라”고 재차 강조했고, 사측은 “시원하게 안을 내면 좋겠지만 요구가 고난이도”라며 더 노력하겠다는 말로 교섭을 마쳤다.

차기 교섭은 **6.5(목) 현대케피코**에서 진행된다.

교섭위원들은 평가회의와 에스제이엠 현장순회 후 17시 선부역에서 진행한 안산권 미조직 실천에 함께해 노동시민들과 만났다. 다음 주부터 실천은 이앤에스로 집중한다.

2025년 경기지부 집단교섭 제시안(1차)

금속사용자협의회 경기지역 관계사용자는 2025년 금속노조 통일요구안 및 지부요구안에 대한 제시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아 래 -

I. 지부 요구

1. 임금인상 : 추후 제시

2. 화재발생 대비 : 원안 수용

- ① 회사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노동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수립한 피난계획을 노동조합에 제공한다.
- ② 회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실시한다.
- ③ 회사는 화재로 인한 위험상황 발생시 즉시 노동자를 대피시킨다.

3. 경기지부 집단교섭 협약 : 추후 제시

II. 통일 요구

1. 작업중지권 : 중앙협약에 따른다.

III. 중앙교섭 요구

1. 기후위기 대응 : 중앙협약에 따른다.

- ① 회사는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이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저감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해 집행한다. 단, 조합은 회사의 계획에 따른 집행에 적극 협조하며, 회사는 조합원의 노동조건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계획은 조합과 협의 후 실행한다.
- ② 회사는 협력사 지원 정책 마련, 협력사 선정 기준 개선 등을 통해 공급망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원안수용)
- ③ 회사는 1항, 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실태와 저감 계획 집행 현황을 조합에 공유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사간 협의로 정한 사안에 대해 기존 노사협의기구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연 1회 진행한다. 단, 기후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조합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응해야 한다.

2. 금속산업 최저임금 : 중앙협약에 따른다.

2025년 5월 29일

금속사용자협의회 경기지역 관계사용자 대표